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청자 시청권 확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6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특정 경기를 과도하게 중복편성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월드컵 중계 방송사업자에 대해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월드컵 경기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 편성될 경우, 국민 시청권이 제약되고 다양한 볼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경우에는 순차편성 예외로 인정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는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장 고민수)’에서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76조의5에 근거해 제안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시청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권고문 전문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장(代)	이정아	(02-2110-1270)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창환	(02-2110-1266)

붙임

권고문 전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순차편성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북중미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한다.

다만,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2026. 6.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